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

라 영 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뜻이 깊은 말이라고 해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 우습게 들리거나 싱거운 소리로 되고만다. 인물이 처하여있는 정황에 따라서 같은 사상감정을 나타내면서도 말은 달라질수 있고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 속담에 있는대로 말은 탁해서 다르고 특해서 다르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20페이지)

언어교제에서 에두름말을 리용하여 사람들사이의 례의도덕관계를 바로 지키는것은 문화적인 언어생활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특히 중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중국어에두름표현들을 적중하게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중국어에두름말은 중국사람들의 례의도덕기준, 행동준칙, 사회적관습, 사고방식, 미학적감정, 가치관 등을 반영하고있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두름말은 자기의 고유한 표현형식과 의미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있다.

중국어에두름말은 언어표현형식의 일종이면서 교제책략의 하나로 되어있으며 언어교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쓰인다.

중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에두름말형식을 인식시키고 언어실천에 적극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형식에는 무엇보다먼저 상대방을 높이며 나타내는 에두름말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주로 직업을 나타내는 에두름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중국사람들의 낡은 관념에 의하면 사람들의 직업의 귀천을 가리고 일반적으로 육체노동과 봉사분야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얕잡아보는 관습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관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해당한 단어들을 존경이나 높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에둘러 표현하는 에두름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실례로 《仆人(하인)》을 《亲随(따라다니는 사람)》, 《伴当(동반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도 주인과 같은 급의 신분을 가진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며 《出家当和尚(집을 나가 중이 되다)》를 《避俗(속된 세상을 피하다)》라고 고상하게 표현한것을 들수 있다.

중국어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에 흔히 《匠》, 《师》, 《长》, 《客》, 《公》 등과 같은 뒤붙이를 붙여 일종의 존중의 감정을 나타내는 에두름말이 있다.

실례로 《船工(배사공)》을 《船师》, 《蒿师》, 《舟师》, 《驾长》 등으로, 《渔民(어부)》을 《罢师》, 《罢客》 등으로, 《农民(농민)》을 《田公》으로, 《樵夫(나무꾼)》을 《樵客》로 에둘러 표현한것을 들수 있다. 그리고 《店小二(점포심부름꾼)》을 《店都知》로 불렀는데 이것은 점포에 대해 모르는게 없다는 뜻으로 에둘러 표현한것이다.

이러한 에두름말형식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있는데 《茶馆服务员(차집접대원)》을 《茶博士(차박사)》로, 《保姆(보모)》를 《阿姨(아지미)》라고 에둘러 표현하는것을 들수 있다. 《阿姨(아지미)》라는 단어가 《保姆(보모)》를 대신함으로써 원아들과 교양원의 관계, 아이와 보모의 관계가 친척과 같이 가까워지고 교양원과 보모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医护人员(의료일군)》에 대하여 《白衣天使(백의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의사, 간호원들이 생명이 경각에 이르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말할수 있다.

《邮递员(우편통신원)》을 《绿衣使者(푸른 옷을 입은 사절)》라고 표현하는것은 중국에서 우편통신원들이 푸른색으로 된 제복을 입고 집집마다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므로 그들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나타낸것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사람들은 예로부터 교제에서 시종일관 상대방을 높이며 부르는것을 하나의 례의도덕으로 간주하여왔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높이며 부르는 말을 썼다. 이것은 상대방의 집사람들을 부르는데서도 표현되었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令郎(아드님)》, 《令尊(아버님)》, 《令堂(어머님)》 등과 같은 존칭어들을 썼다.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형식에는 다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대상을 낮추어 겸손성을 나타내는 에두름말이 있다.

실례로 자기 안해를 《内子(안사람)》, 《内人(안사람)》으로, 자기를 《在下(소인)》로 표현하는것을 들수 있다.

중국사람들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받을 때 겸손과 례의를 중시하고 말을 할 때에는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례의있게 사양하는것을 중시한다. 자기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흔히 자신을 낮추는 단어들을 써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한편 겸손하고 점잖은 자신의 태도를 보여준다.

겸어는 자기를 낮추는 감정적빛깔을 뚜렷하게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례의와 개인의 수양정도를 나타낸다.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형식에는 다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거슬리는 말을 모호한 의미를 가진 말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에두름말이 있다.

교제과정에 말하거나 듣기가 거북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의미가 모호한 단어로 대신하여 쓰면 구체적인 뜻이 상실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언어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한다.

례: 服务员: 请你把那个脏盘子递给我。

客人: 怎么是脏盘子呢?

(접대원: 미안하지만 저 더러운 접시를 저에게 주십시오.)

손님: 어째서 더러운 접시라고 합니까?)

우의 실례에서 접대원이 《脏盘子(더러운 접시)》라는 말대신에 《用过的盘子(다 쓴 접시)》나 《那个盘子(저 접시)》라고 말한다면 교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질수 있다.

언어교제과정에 말하는 사람은 때때로 무례한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꺼들

이고싶지 않은 사실들을 피하기 위하여 의미가 모호한 표현을 리용한다.

례: 尤氏道: “我也暗暗地叫人预备了, 就是那件东西不得好木头, 且慢慢地办着呢。”

(우씨가 말했다. 《나도 몰래 사람을 시켜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좋은 목재가 아니라도 되며 또 천천히 해도 일없어요.》)

우의 실례에서는 《棺材(관)》를 《那件东西(그것)》라는 의미가 모호한 단어로 예둘러 나타냈다.

다른 실례로 일정한 사람의 혼인문제를 《个人问题(개인문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예둘러 나타내는것을 들수 있다.

그리고 《涨价(값을 올리다)》를 예둘러 《调价(값을 조절하다)》로, 《高价(높은 가격)》를 예둘러 《议价(협약가격)》라고 부르는것을 들수 있다.

《差错(잘못)》를 예둘러 《失误(실수)》라고 예둘러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의 정도, 범위, 크기 등의 측면을 줄여서 표현한것이다.

이와 류사한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잘못을 저지르다: 失策, 失错, 失当, 失检, 失宜, 失利

—혼기를 놓친 청년: 大女, 大男, 大青年, 家属

—실업자: 待业青年, 待业生

—실업당하다: 下岗

—사형당하다: 大刑, 抵法, 伏法

사람들은 언어교제과정에 흔히 쓰는 구체적인 표현을 피하고 그보다 외연이 큰 단어를 바꾸어써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례: 甲: 小张这个人怎么样?

乙: 还可以吧。

(갑: 장동무는 어떻습니까?)

을: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사람들은 언어교제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결함을 직선적으로 말할수가 없는 경우 모호하게 대답하게 된다.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형식에는 다음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예두름말이 있다.

이 형식에서는 일정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말하는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은 대체로 서술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실례로 로신의 작품 《약(药)》에서 화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수가 없어 《小栓的爹(소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아직까지도 《孩子他爹(애 아버지)》가 여전히 중국의 많은 농촌녀성들이 남편을 부를 때 쓰는 예두름말로 되어있다.

이런 부름말은 듣는 사람에게 마치 말하는 사람이 딴 사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말하는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동시에 본명을 그대로 부르는것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사람들은 병이 나는것을 꺼려하기때문에 그것을 직접 말하는것을 피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고대중국어에는 《采薪之疾(나무를 하다가 생긴 병)》, 《采薪之忧(앓아서 나

무를 못하게 될 걱정)》등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有病(앓다)》을 에둘러 나타낸 말이다.

《捐宾客》, 《捐馆舍》는 표면상으로는 《손님을 버리다》나 《려인숙을 버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실지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하다》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이다. 《손님》이나 《려인숙》 등은 사람들이 생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던 대상들로서 그것들을 버렸다는것은 생을 마치였다는 의미로 될수 있다.

《弃朝(조정을 버리다)》, 《弃群臣(대신들을 버리다)》, 《弃天下(천하를 버리다)》 등은 임금의 죽음을 에둘러 나타낸 말이고 《弃禄(봉록을 버리다)》, 《弃平居(평시에 살던 곳을 버리다)》, 《弃堂帐(집안의 가림을 버리다)》 등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에둘러 표현한 말들이다.

《解冠, 解龟, 解甲, 解件, 解弃, 解佩, 解缓, 解纓, 解簪, 解篆, 解朝篆, 解绂》 등은 관직에서 물러섰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그만두는것을 가리켜 《挂拍(채를 걸다)》, 《挂鞋(신발을 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두름말형식에는 다음으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로 표현하는 에두름말이 있다.

이 형식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비위에 거슬리는 일부 단어들을 그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조화로움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례로 《走水》는 《走火(불이 나다)》나 《失火(불이 붙다)》를 에둘러 나타낸 말이다. 여기에서는 《火(불)》대신에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 《水(물)》를 가지고 불이 났다는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는 불안한 감정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다른 실례로 《火灾(화재)》를 《火祥(불의 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灾(재난)》의 반의어인 《祥(상서롭다)》을 리용하여 《화재》라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고대시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반의어로 구성된 에두름말은 여전히 널리 쓰이면서 중국어에두름말의 하나의 언어전통으로 되었으며 이것은 화를 피하고 복을 추구하는 중국민족의 심리를 반영하고있다.

고대중국어에서 《厕所(변소)》를 《行清》이라고 에둘러 표현하였다. 《厕所(변소)》를 《行清(깨끗하게 하다)》으로 에둘러 부른것은 그것이 어지럽기때문에 계속 청소하여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한 《监狱(감옥)》를 에둘러 《福舍》나 《福堂》이라고 하였다. 원래 《福舍》나 《福堂》은 《복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감옥에 들어가는것을 마치도 《福(복)》을 누리거나 《祸(화)》를 피하는것으로 여긴데서 생기게 되었다.

지난 시기 《天花(천연두)》를 급성전염병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것을 꺼리면서 그와 상반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见喜(기쁜 일을 당하다)》로 에둘러 나타냈다.

현대중국어에서 《死(죽음)》를 《去天堂(천당으로 가다)》으로, 《丧事(상사)》를 《白喜(기쁜 일)》로 표현하고있다.

병원에서는 사체실을 《平安间(편안한 방)》이나 《太平间(태평스러운 방)》이라고 한다. 극장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의 《太平门(태평스러운 문)》은 실지로는 긴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중들을 소개시키기 위한 비상출구를 에둘러 표현한것이다.

중국어에서는 비위생적인 적지 않은 대상이나 사물앞에 《卫生(위생)》이라는 단어를 붙여 표현하고있다. 대표적으로 《卫生间(위생실)》, 《卫生纸(위생지)》 등이다.

화장품과 관련한 광고에서는 청년들을 괴롭히는 《粉刺(여드름)》를 에둘러 《青春美丽痘(청춘의 아름다운 천연두)》라고 표현한것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며 또 청년들이 이미 왕성한 청춘기에 들어섰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이와 류사한 실례로서 장례와 관련한 단어들에는 《丧(초상)》이라는 단어대신에 《寿(목숨)》이라는 단어를 써서 《寿材(관)》, 《寿具(장례에 쓰는 기물)》, 《寿木(관)》, 《寿器(장례에 쓰는 기물)》, 《寿堂(무덤터)》, 《寿穴(무덤터)》, 《寿衣(수의)》, 《寿域(무덤터)》 등으로 표현하는것을 볼수 있다.

우리는 중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이 례의도덕을 나타내는 중국어어휘표현수법들을 정확히 습득하고 언어실천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중국어에 두름말, 례의도덕